

책 많이 팔리면 그만… 사명감 사라진 출판계 ‘불편한 진실’

“상품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서해문집’ 김홍식 대표 1인 잡지 ‘산책’ 발행

정기구독료 무료, 독자들 서평 모집 중

며칠전 문화부로 출판과 관련된 재미있는 잡지 한권이 배달됐다. 발행인의 표현을 빌자면 ‘엉뚱하고 도발적인’ 1인 잡지 ‘산책’(살아있는 책, 함께 걷는 책)이다.

발행인은 종이책이 죽어가고 지성이 암사당하며 꿈이 탑옥의 칼날에 깨지는 모습을 보다 못해 탄생한 잡지라고 했다.

잡지에 실린 글은 거칠이 없다. 동료 출판인들이 폐번 책에 대해서도 가차 없다. 출판계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속속 깨발려진다. ‘완전히 제 마음대로’ 기준으로 쓰여진 글들은 묘하게 공감이 간다.

발행인이나, 편집인이나, 필자인 김홍식(56)씨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전복 군산 출신인 김씨는 ‘서해문집’의 사장으로 책을 본격적으로 만든지 12년이 된 출판인이다.

이 잡지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질문에 그는 ‘너무 화나서’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0여년전만해도 출판계가 단순히 장사라는 개념을 떠나 문화의 전위대라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발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출판계는 문화활동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요즘 출판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책만 많이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 베스트셀러 조작이다 뭐다 해서 온갖 장난을 치고 서로 육하고 뒷담화하고 그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다 알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내가 직접 독자들과 이야기하자 싶었죠. 안되면 내가 미친놈 되는 거고(웃음)”

잡지는 다양한 꼭지들로 구성돼 있다. ‘베스트&워스트’는 출판과 관련된 ‘10대 존재’를 이야기하는 글이다. 창간호에서는 ‘10대 출판사’를 다뤘다. 철저히 그의 시선으로 뽑힌 ‘10대 출판사’는 사계절 출판사, 도서출판 창비, 돌베개, 도서출판 길, 그린비, 뜨인돌, 사이언스북스 승산, 예경, 산지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다.

‘같은 소재 다른 재미’는 ‘참으로 재미있는 책’을 소재나 주제에 따라 여러권 소개하는 코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발언들도 많이

‘요즘 읽고 읽는 책’과 ‘가차 없다

“내가 만든 책 100년후에도 평가

출판계는 독자들을 한발 앞에서 끌고 가야”



한줄평’ 다른 매체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출판사 탐방기를 표방한 ‘이곳에서 이런 책을?’ 등도 눈길을 끈다. ‘금기의 파괴’와 ‘출판의 종말’이라는 타이틀로 쓰여진 글들은 의미심장하다.

“내가 만든 책이 100년후에도 남아서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출판인들이 없어져가고 있어요. 7~8년전에 ‘아침형 인간’ 같은 자 기계발서 열풍이 불었어요. 이때 빠르면 1주일만에도 책 한권을 똑딱 만들어내곤 했어요. 팔리기도 많이 팔렸죠. 하지만 이 시장은 3~4년전에 한 큐에 갔어요. 독자들 사이에서 몇번은 속아서 샀는데 별것 없다는 의식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런 관행은 독서체 전제를 봉괴시켜요.”

창간호는 모두 5000부를 찍었다. 제작비는 400만원 정도. 서해문집에서 모두 다 부담했다. ‘산책’의 편집은 파격적이다. ‘엉망으로 만들 어라. 틀을 다 깨라’는 김씨의 주문에 따른 결과다.

“10~20년 후를 내다보고 책을 만드는 이들이 인정을 받아야해요. 30년전에 비해 책의 사회적 평가는 떨어졌어요. 책에는 위대한 정신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개 상품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책이 상품’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구요. 출판인 스스로가 위상을 떨어트린 거예요. 좋은 책이 잘 팔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하지만 요즘에는 나쁜 책이 잘 팔리는 게 문제예요. 독자들에 영합하는 책들 말이죠. 출판계는 독자들을 한발 앞

에서 끌고 가야해요. 뒤에서 독자를 밀면 안돼요.”

잡지에 실린 서평과 글들은 신랄하고 아프다.

“이번에 실린 글들을 보면 편집자들이 책 만들 때 두번 볼 것 세번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 놀한데 물리지 않으면(웃음) 책 잘 만들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면 그 역할로 만족합니다.”

‘행복한 1등 독서의 기적’이라는 책을 펴낸 그는 요즘 잘 나가는 강사이기도 하다.

“책을 읽는 법. 책을 친구로 만드는 법 등을 이야기하는데 단단한 성처럼 보이는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많이 느꼈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전남 지역에서는 강의 요청이 없네요. 선산이 있는 담당 메타세콰이어길도 가보고 싶은데요(웃음).”

그에 따르면 ‘산책’은 ‘읽고자 하는 분이 안 계시면 그 순간 사라지고, 읽고자 하는 분이 제 노력의 크기를 넘어선다면 이 몽상의 삶은 계속되는’ 잡지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발행될 수도, 1년에 한번 발행될 수도 있다.

정기구독료는 무료다. 배송료(10부 이하 1000원, 11~50부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발행인은 사서, 교사, 독서애호가들이 ‘좋은 책’과 ‘나쁜 책’, ‘이상한 책’에 대한 서평을 보내주기를 ‘엎드려 부탁’하고 있다. 원고 보낼곳, 구독신청. paja@paran.com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www.geumsoojang.com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힐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족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에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북경 창작센터 작가들 작품 만난다”

시립미술관, 10~13일 북경서 ‘오픈 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이 10일부터 13일까지 북경 창작센터 입주작가들의 작품과 작업 공간을 공개한다.

북경에 있는 창작센터에서 열리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는 광주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공개해 지역 미술을 현지에 적극 알리기 위한 것이다.

제 4기 입주작가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상연·신호윤·윤일권·장현우 등 국내 작가 4명과 중국 작가 왕궈펑씨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김상연씨의 ‘나를 드립니다’, 신호윤씨의 ‘붉은 관음불상’, 윤일권씨의 ‘A Steady Gaze’, 장현우씨의 ‘연주 II’ 등 최근 작품 등도 선보인다.

시립미술관은 매년 두 차례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통해 지역 미술과 미술인들의 역량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



장현우 작 ‘연주 II’

고 있으며 11월에는 이를 작가들의 작품으로 발표전을 열 예정이다. 문의 062-613-7150.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5월엔 고진숙 시인과 함께

우리가곡부르기회, 11일 호남신학대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숙) 5월 행사가 11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학교 카페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 초대한 주인공은 고진숙(시사진) 시인이다. 작품을 전공한 고 시인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조두남 작곡의 ‘그리움’의 작사가로 발표가곡이 100여곡에 달한다. 참가자들이 함께 배워보는 노래는 고시인의 시에 김희조가 멜로디를 부친 ‘산에서 부르는 노래’다.

또 회원 강건상씨가 ‘축복의 노래’를 들려주며 테너 박진영씨가 변주곡 ‘명태’를 부른다. ‘님이 오시는지’, ‘그네’, ‘산촌’, ‘보리밭’, ‘목련화’ 등 학창시절 즐겨 불렀던 추억의 노래들을 부르는 시간도 마련된다.

가곡부르기회는 매달 한차례(두번째 주 금요일)씩 모여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부르는 모임이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가 제공된다.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피아노 초등부 입상자 (3, 4학년)

〈심사위원〉	▲ 은상	▲ 동상	55 김민수(신암4)
이건실(목포대 교수)	1 김수영(광주교육대학교)	5 송수영(동립3)	56 전서희(송정서3)
한정숙(호신대 교수)	2 윤우경(광주부설3)	6 윤은재(광주송원4)	57 한승은(광주동산4)
봉선희(광신대 교수)	12 오연주(광주용산3)	7 김민희(수문3)	60 김수린(광주제4)
황미경(순천대 교수)	16 황자은(봉산4)	11 황현주(동립4)	61 김세민(신암4)
김혜원(광주여대 교수)	19 이송화(곡성중양4)	21 송석우(영광4)	65 정수빈(송정서4)
	32 정은이(불로4)	25 차다원(유안4)	68 서수령(신암4)
▲ 최고상	39 김민서(선창4)	31 박하원(031025생)	72 김다인(태봉3)
34 윤장현(경양4)	46 윤주영(고길4)	36 박효은(화순4)	82 고재은(유촌4)
▲ 금상	53 염가은(송정서4)	38 장동연(불로3)	※최고상 수상자는 컬리인 물사진 2매를 5월 15일까 지 본사 문화사업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8 박채윤(만호4)	67 임예원(만호4)	43 이예원(남악4)	
13 노민경(복포향도4)	70 유호성(영광중양4)	44 이솔하(불로3)	
29 서민수(태봉4)	75 김소망(태봉4)	50 신지은(선창4)	
42 임다례(일곡4)	83 김윤아(광주운암4)	54 유지후(광주삼육3)	

55 김민수(신암4)	56 전서희(송정서3)
57 한승은(광주동산4)	60 김수린(광주제4)
61 김세민(신암4)	65 정수빈(송정서4)
66 서수령(신암4)	68 서수령(신암4)
72 김다인(태봉3)	73 김민희(수문3)
82 고재은(유촌4)	83 김윤아(광주운암4)